

지회전화번호
 서울 (02) 743-1937 부산 (051) 506-3599
 경기 (0333) 666-6091 강원 (0361) 481-3876
 충북 (0441) 43-1904 충남 (042) 271-7818
 전북 (0671) 625-2302 전남 (062) 367-1161
 경북 (053) 422-7867 경남 (0551) 42-6573
 제주 (064) 22-6907 인천 (032) 762-7797

양봉협회보

192호
 1996년 8월 25일
 월간 <비매품>

발행인:정해운/ 편집인:김충겸/ 인쇄인:양광호/ 발행처:(사)한국양봉협회 110-1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73 삼보빌딩 301호 전화(02)763-1372·5903·FAX:764-1297

보해 「김삿갓」 히트로 40.6% 신장

상장회사 協조사결과, 상반기 매출 전년比 분석 국산꿀, 국제시장세 파악하며 수급균형 이뤄야

올 상반기 식·음료업체 중 두산종합식품, OB맥주 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가 심화된 반면에 보해양조는 「김삿갓」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흑자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법인 중 식·음료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영업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두산종합식품과 OB맥주의 경우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4% 감소한 1천50억4천7백만원, 20.9% 감소한 1천7백67억7천3백만원의 매출을 각각 기록, 적자폭이 확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양식품은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7.4% 감소, 적자로 전환된 반면에 「김삿갓」으로 올 상반기 주류시장에서 히트를 기록한 보해양조의 경우는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40.6% 증가해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해양조가 경쟁 소주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제치게 된 것은 「김삿갓」상품의 히트 때문이라 하지만, 우리 양봉인들이 보기에는 소주업체마다 희석감미 대체원료를 벌꿀에 착안

해 상품개발에 나섰다. 벌꿀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보해소주는 국산 벌꿀의 총생산의 70%의 물량을 점하면서 품질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아카시아꿀의 진가를 바로 파악했기 때문인 것이다. 또 제품의 상품 광고지면에서 「토종꿀」을 강조하는 걸 보면 그렇다.

어떻든 축산업계에서는 잇따른 악재(惡災), 즉, 우유·쇠고기파동 등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울며 떡을 삼키고 있는 고급소주는

쏟아져 나오면서 꿀 수요가 급증, 양봉업체가 특수를 누리는 상황에 대해 가뜩이나 부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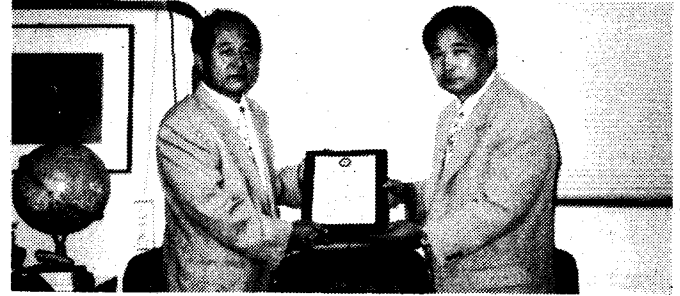
예전까지는 벌꿀을 생산해 놓고도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양봉업체들이 울며 떡을 삼키고 있는 터에 울며 떡을 삼키고 있는 고급소주는

시판중인 벌꿀첨가 고급소주는 김삿갓, 청산리벽계수(두산), 참나무통맑은소주(진로), 독도(금북주), 뉴화이트(무학주), 황진이(선양) 등 모두 6종이다.

올해 아카시아꿀 작황이 여의

치 못한 사정에서 소주업체들마다 꿀수요가 급증된 때문에 양봉업체 도매시장에서는 아카시아꿀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에 있고 가격 또한 조금씩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에 생산양봉농가나 유통업체들이 가격인상을 노리고 출하를 기피,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모처럼 맞은 신수요의 호재를 오래도록 지켜나가려면 생산·판매업자들 모두가 국제시장세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품질을 고급화 하고 안정적인 수급균형을 이뤄나가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협회는 지난 7월 31일 보해양조(대표 任鍵雨)에게 「김삿갓」소주의 국산 아카시아꿀 원료사용으로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준 공로로 감사패를 증정했다. <사진은 본협회를 방문한 보해중앙연구소 李光烈소장(왼쪽)에게 정해운회장이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는 모습>

불량 농축산물 수입증가 발암물질 검출식품도 89t이나

올 상반기중에 수입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가운데 약 56억원어치가 부패되거나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이유로 수입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기 또는 반송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수입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가운데 4백41건, 3천4백74톤(6백96만3천달러, 약 56억 원)이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종류별로는 수산물이 2천3백48톤(5백17만8천달러)으로 전

체의 67.6%(금액기준 74.4%)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이 1천17톤(1백86만9천달러), 축산물이 1백9톤(33만6천달러)이었다.

부적합 판정사유별로 살펴보면 수산물의 경우 육안으로 보아도 변질됨으로 먹기에 부적합하거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93.5%를 차지했다.

농산물 및 가공식품은 첨가물 사용 위반(2백94톤), 대장균 등 미생물수 기준치 초과(2백35톤), 부패·변질(97톤), 유통기한 초과(73톤), 등으로 적발된 경우가 많았으며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나 발암성 물질인 아플

라톡신이 검출된 식품이 각각 3.7톤 및 89톤이나 됐다.

축산물은 항생·항균제 및 농약이 잔류된 경우가 90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19톤이었다.

국가별로는 79개 수입국가중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나라가 25개국이었으며 미국산이 전체 부적합 건수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프랑스 11.7%, 일본과 중국 각 10.2% 순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해양부는 이같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폐기처분하거나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조치하고 있다.

현재 수산물은 해양부 산하 국립수산물검역소가,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는 보건복지부의 서울·부산·인천지방 식품의약품청이, 축산물은 농림부 동물검역소가 각각 수입검사하고 있다.

유통기한 표시위반 44사 적발 소비자보호원 88개업소 조사결과

제품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해서 유통기한 44개사 59개 제품이 적발됐다.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6월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9개 도시 80개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절기 식품안전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소중 60.5%인 50개의 업소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

매하고 있었으며 현행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달리 표시, 소비자가 쉽게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이 44개사 59개 제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투락유통의 「생생만두」, 삼육식품의 「삼육짜장면」, 동원산업의 「심심맛살」 등은 유통기한 표시조차 없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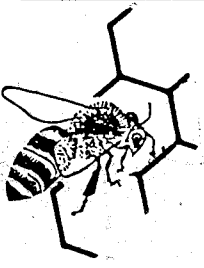
새로운 규격꿀병 발매안내

그동안 저희 제품을 애용해주신 고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독창적이고 견고한 새로운 규격꿀병을 생산·공급하게 됨을 널리 알려드립니다.

현재 전국 판매망을 통해 최고의 품질로서 고객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2의 창업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최근 시중에는 본사제품과 유사한 사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므로 두산제품인지 꼭 확인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꿀병 생산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품규격 / BOX당 수량

구분	3kg	2.4kg	1.8kg	1.2kg	0.6kg	0.3kg
수량	9	12	12	15	15	48
구분	신2.4kg	신1.2kg	신0.6kg	신신1.2kg	50g	
수량	9	16	32	16	100	



두산유리 규격꿀병 총판 (주)대한양봉산업

☎ 156-035 서울시 동작구 상도5동 242-2
 ☎ 817-8127 FAX:817-8128